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받은 잠을 즐기라고 있지 않다  
부엌이처럼 깨어 있으나.  
깨달음을 얻기 좋은 밤이다.  
「장로계경」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월 4일) · 주간  
제 927호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 본격화 전망

### 미주 한국불교문화원 창립

미국 내 한국 문화재 환수와 불교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불교단체가 첫 발을 내딛었다.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은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프라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문화재 환수 및 한국 불교문화 진흥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초대 회장으로 김정광 준비위원장, 감사에 성태석 공인회계사, 이사에 최한규 씨 등이 선임됐다.



미국에서 문화재 환수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미주 한국불교문화원은 2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프라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미 동부 불자들과 문화재 환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Newsroh.com

미국 반출 문화재 4만여 점  
일본 이어 두번째로 많아  
불법 문화재 환수 운동 기대  
사찰 순례 등 문화 사업도

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원은 우리 문화재 환수 운동 외에도 불교 문화 전시 출판 공연을 비롯,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홍보, 한국 불교 문화 순례, 불교 문화 강좌 및 강연회, 미국 내 불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원의 출범에 불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무단 반출된 문화재 환수 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5월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42,293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으며 이는 66,295점을 가진 일본에 이은 두 번째다.

특히 미국에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수 있다. 먼저 중종 왕비인 문정왕후가 사용한 왕실 어보가 LA 박물관에 있다. 원래 종묘에 봉안돼

있었는데 한국전 당시 불법으로 미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박물관에는 문정왕후가 발원한 나한도 200점 중 유일하게 남은 오백나한도 덕세위가 소장돼 있다.

하버드대 아서 새클리 뮤지엄에는 지장경 금니사경이 있으며 보스턴 미술관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지공, 나옹 스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구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있다.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2009년부터 해문 스님과 함께 한국 전쟁 전후로 미국에 불법 반입된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 회장은 메릴랜드의 국가기록보존소에서 약탈문화재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냈고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된 부처님 진신사리와 사리구의 존재를 확인, 이의 반환을 요구했는가 하면 LA 박물관에 있는 문정왕후 어보를 최초 촬영,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김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한국불교문화원은 문화재환수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미주동포들과 불자들이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명절 되세요”  
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5면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6일 복지관 1층 식당에서 '호호만두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복지관을 장기간 이용한 어르신 40여 명과 충신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지극=이나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총림법·법인법 현안 법안 통과되나

### 조계종 중앙총회 3월 임시회 상정 예정 안건은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항적)가 3월 19일 오전 10시 제193회 임시회를 개원한다.

중앙총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은 2월 5일 제6차 연석회의를 열고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93차 임시회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열리며 의안 접수는 3월 12일까지, 종책질의 접수는 3월 14일까지 이뤄진다.

결산 감사로 진행되는 이번 총회는 총림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월 법안인 법인법 등 중법 제개정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광제 스님 추대 등의 안건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회 개정 및 중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총림법 개정안이다.

현재 총림법의 밑그림은 나와있는 상태다. 종단 쇄신위원회가 1월 7일 회의에서 수정·의결한 '총림법' 개정안 제안서에 따르면 임의회 구성에 있어 임의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현직 총회위원과 전직 주

지, 원로, 비구니 스님(20%), 재가자(10%) 등 사부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총림을 선교율 관련 기관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기존 구성과 달리 교구 내 수발사에 관련 기관을 분산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총림 유지 선출에 대해서는 임회가 총림주지

### 3월 19~23일 회기 확정

### 총림법·법인법 제개정안 등 상정 예정... 통과 관심

### 광제 스님 방장 추대 확정도

를 복수추천하고 방장이 지명하는 방식과 방장이 추천하지만 임의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총림법 개정은 종단쇄신위원회 제안을 기반으로 8대 총림에 대한 실사와 공청회, 좌담회 등의 과정을 거쳐져 적지 않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논란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인법 제정은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법인법은 2011년 총무원장 발의로 상정됐으나 선학원 등 종단 주요 법인들의 반발로 여지까지 이월돼 왔다.

이 같은 계류과정을 거쳤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인법 제정은 이견이 있었지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선학원의 반발이 심해 제정 후에도 적용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로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지혜, 초우, 혜정 스님과 종정 진제 스님의 원로의원 추천과 △총림학교관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 등의 인사 안들도 다뤄진다.

또한 개원일인 19일에는 오후 1시부터 총회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도 진행된다.

총회의장 항적 스님은 6차 연석회의에서 "총림법, 법인법 등은 종단에 중요한 과제들과 결부되는 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종헌준법특위에서 잘 살피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 927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신년계획  
삼장원·염불원 설립 가시화  
日도단 불상 애구 약탈  
동대 총동창회 종관위 갈등 심화

신행 6  
2030 포교 나선 '우리는 선우'

경주 남산을 오르다 12  
신라인의 불성 조성 사상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선정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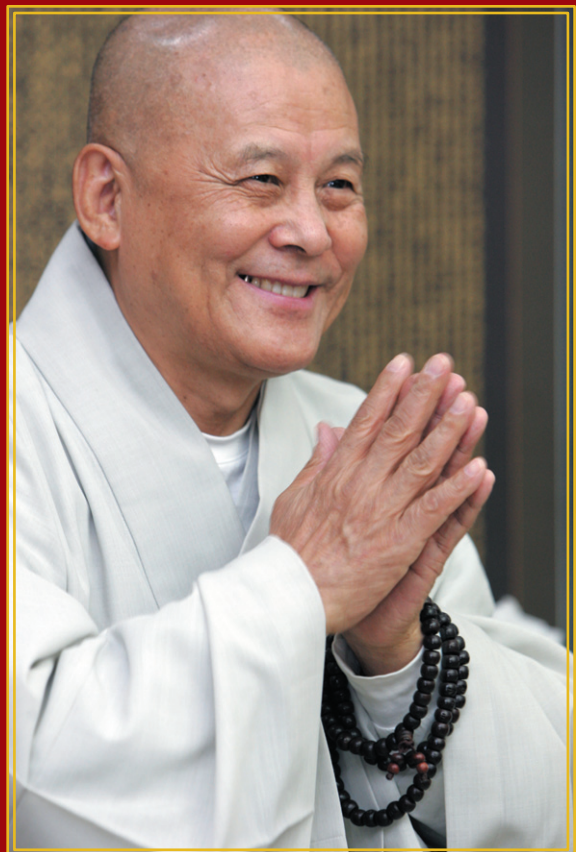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7일 이현진(경기도 남양주시)씨가 제안한 봉축표어를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선정 이유에 대해 봉축위원회는

신종일 기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으로 정진하여 모두 함께 의지하며 희망의 길, 행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뜻"이라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보살 정신으로 이웃들을 보듬고 우리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追慕 큰스님! 뵙고 싶습니다

가산지관대종사님열반후409일

- 사부대중께서 간직하고 계신 대종사님의 행장과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찾습니다
- 제1기 고향 청하 유년기와 보경사·봉암사 주석기[1932~1950]
- 제2기 해인총림 주석기(주지·강주 재직기)[1950~1970]
- 제3기 종립동국대학 지도기(교수 및 제11대 총장재직기)[1970~1990]
- 제4기 가산도량 회향기[1991~2011]
- 제5기 제32대 총무원장 수행기[2005~2009]
- \*특히 열반에서 다비장까지[2012년 1월 2일~6일]의 특별한 영상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창경궁로26길15(명륜4가206-6)  
TEL 02)765-9602-3 FAX 765-5673